



生命工學기술 國際規範 提定

OECD, 大量培養 안전규제 크게완화

선진각국의 生命工學산업화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OECD(經濟協力開發機構)는 生命工學技術에 대한 國際規範(가이드라인)을 처음으로 발표했다.

특히 OECD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현재 각국이 독자적으로 정하고 있는 실험실차원의 대량배양기준에 비해 안전규제가 크게 완화됐고 신종 미

생물들을 농약대신 사용하는 野外撒布의 길도 열어놓았다.

日本 通産省의 경우 OECD의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3月末까지 자문기관인 化學品審議會가 안전지침을 마련하는 등 生命工學技術의 산업화가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OECD科學技術政策委員會가 83년에 설치한 바이오테크놀러지안전문

제전문가 회의에서 제정을 추진해왔다.

전문가회의에는 美國·日本·西獨등 생명공학 선진국외에 캐나다·濠洲등 22개 국과 EC(유럽공동체)가 참가하고 있다.

GILSP (Good Industry Large Scale Practice)란 명칭의 이 가이드라인은 오는 2월 5, 6일 양일간 개최될 OECD과학기술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다.

日, 긴급特許出願承認기간 단축

3年에서 1年으로, 2月부터 實施

日本은 긴급 特許出願의 승인에 필요한 기간을 종래의 평균 3年으로부터 1年으로 단축시키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 오는 2月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日本 特許廳 관리들이 밝혔다.

이 관리들은 美國과 유럽국들이 出願한 特許承認에 오랜 시일이 걸리는 것은 일종의 非

관세장 벽이라고 주장해 오며 따라 이들 국가들과의 협의를 통해 이같은 새로운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히고 이미 생산단계에 돌입했거나 6個月 이내에 생산단계에 들어설 特許商品에 대해 이 절차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知的所有權보호 國際協力體구성

美·日·歐원칙 合意, 韓國도 參加권유받아

美國과 日本, 유럽국가들은 知的所有權을 보호하기 위해 國際協議그룹을 결성하기로 했다.

이 그룹은 특히 소프트웨어

著作權등 知的所有權의 국제 거래에 따른 統一규칙을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이번달 중순경 기본적으로 합의할 방침이다. 특히 美國과 日本은 韓國

香港·싱가포르등 중진국·개발도상국에도 참가를 권유하고 知的所有權問題를 新라운드(多角的貿易交渉)의제로 추가할 것을 검토중이다.

국제협약의 그룹은 현재 각국이 실시하고 있는 知的所有權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국제거래실정등을 세밀히 점검, 국제코드(規約)를 작성하고 特許외에도 바이오테크놀러지(生命工學)의 소프트웨어등도 대상으로 할 계획이다.

日, 85年 辨理士試驗

76名 合格

85年度 日本辨理士試驗에는 총지원자 2,937名이 응시, 여자 3名을 포함한 76名이 최종合格됐다. <☞>